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문 휘 창**
박 지 민***

최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정책으로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되돌려 해외고용을 줄이고, 국내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고용과 해외고용은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 관계에 있다. 본 논문은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사례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쟁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경쟁체제 하에서는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다른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업에서 삼성전자와 국내의 중소기업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애플과 기술 및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는 애플의 협력업체와 인건비 및 제조기술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 전체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모두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례를 통하여 국제화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면서 기업과 국가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해외직접투자, 국제화 전략, 삼성전자

I. 서론¹⁾

2011년 2월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은 애플(Apple)의 고(故)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페이스북(Facebook)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등 미국 12개 주요 IT 기업의 CEO들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에게 2010년에 해외에서 제조되어 팔린 7천만 대의 아이폰과 3천만 대의 아이패드, 그리고 5천 9백만 대의 기타 애

플 제품 제조공정을 미국 내로 옮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불가(不可)함을 표명했다.

오바마와 스티브 잡스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정치가와 기업가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선거의 실제 득표율과 직접 연결되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일자리 창출과 만족할 만한 임금수준)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겨 주주들을 위한 배

논문접수일: 2013. 11. 27. 1차 수정본 접수일: 2014. 04. 23. 2차 수정본 접수일: 2014. 07. 02. 게재확정일: 2014. 07. 04.

* 본 연구에서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참고한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파리-소르본(파리 4)대학 근현대사대학원(École Doctorale 188) 박사(jimmynparc@gmail.com), 교신저자.

1) 이 부분은 문휘창(2012) 동아비즈니스리뷰 105호에 실린 "포터 교수도 못 본 글로벌 트렌드: 다중 가치사슬"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음.

당금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한국기업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점차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언론은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한국 내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2012/09/04)의 경우, 국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1명을 고용할 때, 해외에서는 4명이나 고용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이 자칫 국내고용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²⁾ 영국의 경제일간지 Financial Times(2012/04/26) 역시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한국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기업들이 왜 전략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재하다. 또한 이런 시각이 자칫 행정적 규제로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³⁾ 대한 경제적 효과를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및 국민 경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제화와 FDI

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국제화는 필수적이다(Moon, Rugman, and Verbeke 1998). 국제화의 수단은 무역, 해외간접투자, FDI로 구분된다(서울대학교·지식경제부 2009). '무역'은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가 간 이동을 뜻하고, FDI는 자금, 기술 및 인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의미한다. 무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개편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FDI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서울대학교·지식경제부 2009)(표 1 참고). 참고로 해외간접투자는 금융투자를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경기(景氣)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성이 매우 심하여 불안정하다. 주식 및 펀드를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표 1〉 국제화의 수단

무역	해외간접투자	F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재 및 최종재의 이동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개편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를 통한 이윤추구 (주식, 펀드 등) • 경기에 따른 심한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의 이동 (자금, 기술, 인력 등) •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

출처: 서울대학교·지식경제부(2009).

2) 그러나 이 수치는 해외고용이 4명 증가할 때 국내고용도 1명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고용과 국내고용의 관계를 제대로 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도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함.
 3)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FDI를 '외국인직접투자', 국외로 유출되는 FDI를 '해외직접투자'로 명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FDI를 Inward FDI (또는 Inbound FDI), 국외로 유출되는 FDI를 Outward FDI(또는 Outbound FDI)로 구분하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따름.

무역을 통해 한 국가가 이익을 보면 상대국가에서는 '경쟁' 분위기가 발생하여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FDI는 해당 국가에 진출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술이전, 고용창출, 기업 투명성 증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투자기업과 투자국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국에도 도움을 준다(Moon 2007).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단계로 더 나아갈수록 수출뿐 아니라 FDI도 중요시하는 종합적인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 수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무역이라는 국제화의 일부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utward FDI(해외 직접투자, OFDI)와 Inward FDI(외국인직접투자, IFDI)의 경우, GDP 대비 비율로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같은 1차 신흥 산업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현저히 낮고, 2차 신흥 산업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표 2 참고).

학계에서는 기업의 OFDI가 다음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OFDI를 통해 이뤄진 비용절감은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렇게 발생된 이득은 국내로 환류 되어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Desai, Foley, and Hines, Jr. 2005; Moon 2007; Herzer 2008; 김흥기 2010). (2) 증가된 해외 공장 대부분은 임가공(賃加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므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된다(김미아 1998; Ha 2003). 또한, (3) 국제 분업 시스템은 국내 본사의 기능을 개발·디자인·마케팅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증

〈표 2〉 한국 국제화의 현주소

국가	무역						FDI					
	수출(% of GDP)			수입(% of GDP)			Outflow(% of GDP)			Inflow(% of GDP)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한국	49.7	52.3	56.2	46.0	49.7	54.1	2.1	2.3	1.8	0.9	0.8	0.4
홍콩	190.9	218.9	225.5	183.4	213.4	221.5	30.6	42.5	33.5	25.0	31.7	34.1
싱가포르	224.8	207.2	209.0	196.8	178.7	182.3	9.7	9.5	9.9	13.3	21.8	25.2
인도네시아	24.2	24.6	26.3	21.4	22.9	24.9	0.4	0.4	0.9	0.9	2.0	2.2
말레이시아	91.4	93.8	91.6	71.1	76.6	75.7	4.0	5.6	5.5	0.8	3.8	4.3
필리핀	32.2	34.8	31.0	33.4	36.6	36.0	0.2	0.3	0.0	1.2	0.7	0.6
태국	68.4	71.3	76.9	57.8	63.9	72.4	1.6	1.7	3.1	1.8	3.1	2.8
일본	12.7	15.2	15.2	12.3	14.0	16.1	1.5	1.0	2.0	0.2	-0.0	-0.0
중국	26.7	30.6	31.4	22.3	26.7	27.3	1.1	1.2	0.9	1.9	2.0	1.8
신흥 산업국	-	-	-	-	-	-	4.3	5.2	4.6	3.6	4.9	5.1
1 st Tier	-	-	-	-	-	-	6.5	8.0	6.7	5.4	6.9	7.2
2 nd Tier	-	-	-	-	-	-	1.3	1.5	2.0	1.1	2.3	2.5
G20	-	-	-	-	-	-	1.8	1.8	1.8	1.4	1.5	1.5
세계평균	-	-	-	-	-	-	2.0	2.3	2.4	2.1	2.1	1.9

주: 1) 무역의 수출과 수입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함, 2) 신흥 산업국의 1st Tier에는 한국, 홍콩 및 싱가포르가 포함됨, 3) 신흥 산업국의 2nd Tier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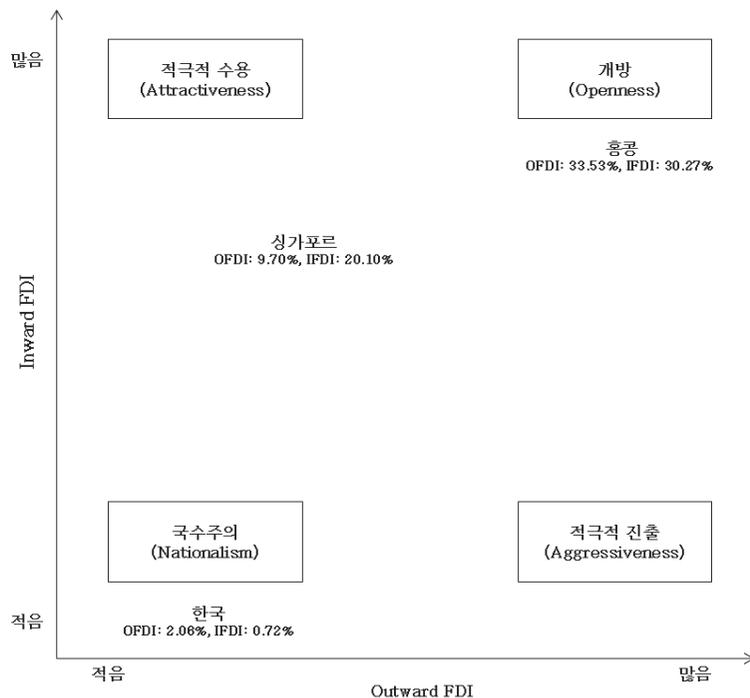
자료출처: 1) 무역: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ww.worldbank.org, 2) FDI: UNCTAD, www.unctad.org.

가한다(Masso, Varblane, and Vahter 2008; 장용준·현혜정 2012).

그러므로 이러한 FDI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DI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FDI는 아시아의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그림 1 참고). 최근 FDI의 이점을 인지도하고, IFDI를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활발하나 OFDI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으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화와 함께 한국계 다국적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국외로 진출하는 OFDI는 점차 늘어날 전

망이다. 이 시점에서 왜 기업이 OFDI를 할 수 밖에 없고, OFDI를 통해 기업이 고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FDI의 경제적 효과를 국가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이를 세계 휴대폰 분야에서 최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무선사업부)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 답하고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국 GDP 대비 OFDI와 IFDI의 비율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2) FDI를 활용하여 국제화의 정도를 측정하였을 경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OFDI와 I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화를 하는 경우 '개방', OFDI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IFDI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극적 진출', I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OFDI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극적 수용' 그리고 OFDI와 IFDI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국수주의'라고 표기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출처: Moon and Bark(2001)을 활용하여 각국의 위치를 삽입함.

〈그림 1〉 국제화 정도 및 한국 FDI의 현주소

III. 왜 OFDI인가?

OFDI의 진출 동기는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자원 추구형(Resource-seeking), 시장 추구형(Market-seeking) 및 효율 추구형(Efficiency-seeking) 등이 있다(Moon and Roehl 2001; UNCTAD 2005). 여기서 효율 추구형은 주로 값싼 인건비를 해외에서 찾아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자원 추구형과 함께 생산비 절감형에 해당된다. 시장 추구형은 시장개척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동기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전통적인 세 가지 분류법은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에 포함되며, 이들은 생산조건과 수요조건에 일부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비전통적 투자동기가 된다(Moon 2007). <표 3>에서는 이러한 분류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하였다.

3.1 OFDI의 경제적 효과: 국가적 측면

OFDI의 경제적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Dunning(2003)과 Moon(2007)은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OFDI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표 4 참고).

첫째, 기초 생산조건 측면에서 보면 본국의 생산 요소에 관련된 시설과 투자의 타국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본유출과 고용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타국으로의 투자가 본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본유입과 고용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고급 생산조건 측면에서 볼 때 타국의 낮은 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정운오·전규안 2013), 때로는 해외의 앞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시장조건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관련 재화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로 인하여 신시장이 개척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이 기존보다 더 증가하여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또한 해외 진출로 인하여 해당시장은 물론 근처 국가의 시장으로까지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관련산업 측면에서 보면 한 기업의 생산시설과 이와 연계된 기타 산업들이 한꺼번에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일시적인 산업공동화 현상을 일으

<표 3> OFDI의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

구분	동기	기업 사례	진출지역	목적
생산조건	생산비 절감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인건비 절감
	노하우 습득	LG전자	미국	기술습득
수요조건	시장개척	지누스	중국, 홍콩, 러시아, 미국	현지시장개척
	시장학습	삼성전자	이탈리아	디자인 학습
관련산업	동반진출	STX 협력업체	중국 대련	현지 협력
	인프라 활용	전자업체	실리콘밸리	첨단 인프라 활용
경영여건	규제회피	이건산업	솔로몬 군도, 칠레, 중국	환경단체 압력
	전략적 입지	아이리버	중국, 홍콩, 미국	주요 생산 및 판매기지

주: 음영처리부분은 전통적 관점의 FDI 진출임.

출처: Moon(2007)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표로 바꿈.

〈표 4〉 FDI 유출이 본국에 미치는 효과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생산조건	기초	장기적 자본유입, 고용증진	일시적 자본유출, 고용감소
	고급	생산성향상, 해외기술 습득	
수요조건	크기	신시장개척, 수출증가	일시적 수출 감소
	질	글로벌 시장 확보	
관련산업	클러스터	관련산업의 발전	산업공동화 현상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	
경영여건	시장구조	산업구조의 선진화	해당산업의 국내기반 약화
	자원배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처: 산업자원부·KOTRA 무역투자연구원(2007).

킬 수 있다. 그러나 해외생산시설이 본국에 있는 시설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습역량의 증진 및 기술혁신이 이뤄져 관련산업이 더 발전하게 된다(Moon and Jung 2010; Moon, Parc, Yim, and Yin 2013).

넷째, 경영여건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하여 해당산업의 국내기반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 시설들은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보다는 해외운용이 더 효율적이어서 진출한 것이다. 즉 국내 잔존 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 진출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부문들이 국내에 잔류하게 되어 산업구조는 더욱 선진화 되며, 이를 통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2 OFDI의 경제적 효과: 기업적 측면

앞에서 OFDI의 경제적 효과를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론으로 O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기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본 단원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실례를 들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다 사

실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생산조건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고용 인력은 미숙련인력과 고급인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미숙련인력의 경우, 경북 구미사업장의 휴대폰 1대당 인건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사업장의 인건비는 16으로 구미사업장의 휴대폰 1대당 인건비는 베트남사업장의 약 6배에 이른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미숙련인력을 경북 구미보다 베트남에서 고용하면 휴대폰의 제조원가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급인력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에 고용된 고급인력의 대부분은 R&D, 운영, 마케팅 및 금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부문들에 종사할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비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쉽다. 따라서 인력을 미숙련인력과 고급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해외 진출 시 베트남에서의 고용이 국내고용을 감소시키는 제로섬 관계로 보기 보다는, 베트남이 미숙련인력을 담당하고 한국이 고급인력을 담당하는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수요조건 측면에서 볼 때, OFDI는 투자유치국과 인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베트남사업장의 경우 2012년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1억대 생산하여

매출액 129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내수는 3억 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 126억 달러는 베트남으로부터의 해외수출이었다. 특히 브라질과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보호주의로 수입 관세가 매우 높아, 타국에서 제조하여 브라질로 들여오는 방법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다.

셋째, 관련산업 측면에서 볼 때, OFDI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함께 이득을 본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구미사업장의 경우 휴대폰 생산에 따른 총 부가가치의 약 80%를 협력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베트남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조달비율이 약 90%에 이른다. 이 두 경우 모두, 협력업체는 대부분 한국계 기업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성장은 협력업체의 성장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넷째, 경영여건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 입지로서 OFDI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산시설과 관련시설을 한 곳에 모아두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생산 및 공급망이 와해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의 도호쿠(東北) 대지진의 여파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의 생산시설과 관련시설이 훼손되어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한 2012년 태국의 홍수로 인하여 이곳에 모여 있던 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요시설을 분산해서 배치하면 큰 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OFDI를 잘 활용하면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고, 주주의 반 이상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한국기업으로 분류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곳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작은 규모의 생산 시설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법정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을 수도 있다.

IV.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 진출과 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⁴⁾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 OFDI의 영향중에서 언론에 의해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국내고용 문제와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것이다(Financial Times 2012/04/26; 조선일보 2012/09/04).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고용문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관해서 주로 다루었다.

특히 근래 들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OFDI의 관점에서 고용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기업의 범위에 대한 재정의의 내렸고,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국제화된 기업 활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간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대기업의 OFDI 활동이 국내외 고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4) 이 부분은 문휘창(2013) 동아비즈니스리뷰 127호에 실린 “애플, 오바마 부탁에도 아이폰 中 생산 고수한 이유...”의 일부분을 심화·발전시켰음.

4.1 고용 없는 성장?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소니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국제화를 통해서 많은 약점을 극복하였기에 가능했다(Moon and Lee 2004). 특히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해외 인력 비중이 전체 인력의 50%를 넘었다(전체 인력 22만 1,700여 명 가운데 국내 인력은 10만 2,000여 명, 해외 인력은 11만 9,800여 명임). 2010년 49.8%였던 해외 인력 비중이 단숨에 54%로 늘어났는데, 이는 해외 생산시설이 늘어난 결과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베트남에서 고용한 1만 5,0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5만 9,0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조선일보 2012/09/04).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국내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무선사업부의 자체 고용을 살펴보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국내 매출은 3.2배가 증가하였는데(2012년 매출 11조 원), 같은 기간 국내고용도 3.2배 증가하였다(2012년 인원 19,000명). 인력구조를 미숙련인력과 고급인력으로 구분했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고급인력은 약 7.4배, 미숙련인력은 1.1

배 증가하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2008년 이후,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내의 연구개발 중심의 고부가가치 인력이 2008년 9,051명에서 2012년 13,879명으로 4,828명(53%) 증가했다(표 5 참고).

특히, 관련 분야의 국내고용 창출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국내 총 고용규모는 약 150,000명에 이르는데, 이중 삼성전자의 자사가 22%, 관계사가 11%를 그리고 협력사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1차 협력사는 374개이며, 2차 협력사는 1,144개로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4.2 기업의 범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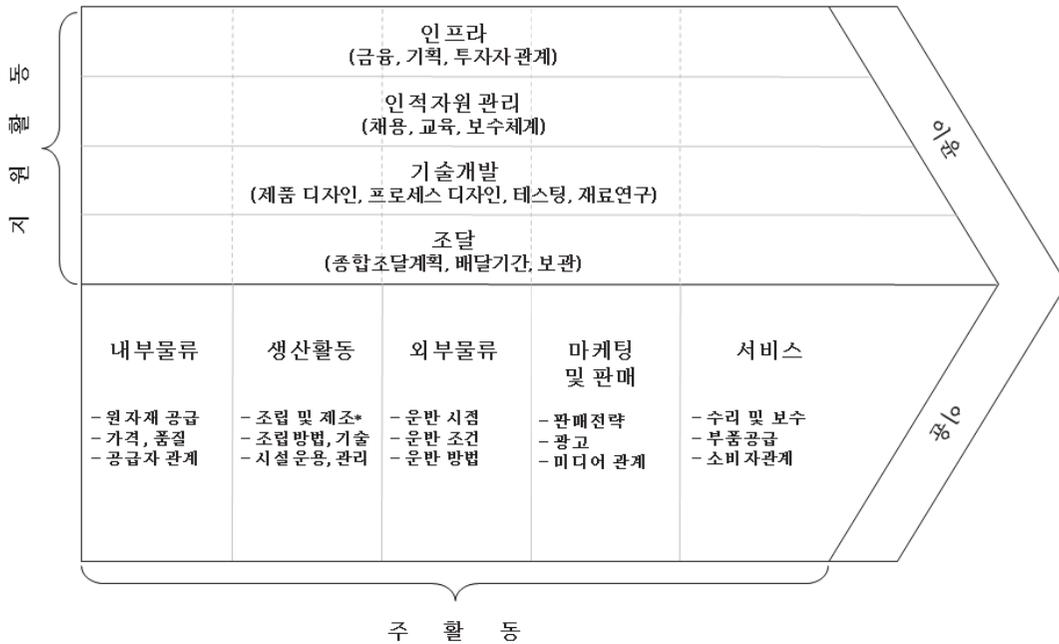
제조 시스템을 기업의 가치사슬을 통해 더욱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데(Moon 2010), 이 가치사슬을 휴대폰 부문에도 활용할 수 있다(Kang, Chang, and Song 2013). 이를 삼성전자에 적용해서 분석하면, 삼성전자 휴대폰의 매출 증가는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부문의 활동이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의 고용 역시 증가하므로 ‘조립 및 제조’부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본사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잘못된

<표 5> 무선사업부 국내 고부가가치 인력 증가 추이

구분	2008년	2012년	증가인원	증가율
연구개발직	6,895	9,627	2,732	40%
디자인직	311	522	211	68%
기술직	1,845	3,730	1,885	102%
계	9,051	13,879	4,828	53%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

5) 본 단원 이후로 제시된 자료는 2012년 12월 기준임.



주: *표시는 해외부문.
출처: Porter(1985).

〈그림 2〉 가치사슬(Value Chain)

것이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의 범위를 넓고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1) 제조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고, (2) 국제 분업 시스템의 확립으로 인해 국내 본사의 혁신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3) R&D 인력과 같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국내에서 더 많이 창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면접연구방법에서도 앞에서 이론적으로 다룬 부분과 동일한 패턴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로부터 수입해 가는 부품소재의 양이 많아져 이로 인한 관련산업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한편, 휴대폰 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쟁구도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경쟁,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 대 애플 협력사 간의 경쟁 구도로 봐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체 매출은 비슷하나(1.2배)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애플의 절반에 불과(0.5배)하다. 또한 삼성전자는 적은 이익규모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비해 높은 R&D 비용을 지출(3.1배)하고 있으며,⁶⁾ R&D 비용의 이익규모 대비 지출은 삼성전자가 48%로 8%의 애플에 비해서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고용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

6) 삼성전자의 경우, 무선사업부, 반도체사업부, 생활가전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등 다수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R&D 비용 비교 시 국내의 주요 언론들은 사업부 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반 추세를 따랐음.

〈표 6〉 삼성전자와 애플의 현황 비교

구분	삼성전자(A)	애플(B)	차이(A/B)
매출(\$백만)	184,533	156,508	1.2 배
이익(\$백만)	21,880	41,733	0.5 배
R&D 지출(\$백만)	10,583	3,381	3.1 배
이익규모대비 R&D 지출	48.4%	8.1%	6.0 배
자국 내 정규직고용	90,000 명 ¹⁾	73,000 명 ²⁾	1.2 배

주: 1) 도소매 판매원 제외, 2) 도소매 판매원 42,400명 포함.

출처: 1) 삼성전자-2012 회계년도 언론 발표자료(2013년 1월), 2) 애플-2012년 회계결산 Annual Report(2012년 9월).

해 1.2배로 더 많이 창출하고 있다(표 6 참고).

즉, 애플과의 지속적인 경쟁을 위해 삼성전자는 R&D 부문 등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내고용 또한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더 유익하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해외 우수 기업들과의 기술력 차이를 좁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고급기술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경우 기술경쟁력은 물론 가격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비를 줄여 막대한 R&D 투자금액을 확보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 등 저가의 생산비를 얻기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에 입각해서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을 경제정책 목표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무조건 일자리 수를 늘려 고용을 늘리는 양(量)적 추구 방식보다는 고급 일자리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질(質)적 추구방식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

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고급 일자리는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가치사슬의 국제화: 국제분업시스템

해외 진출로 인하여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는 'Mother Factory'와⁷⁾ 'Center of Excellence'의⁸⁾ 역할이 부각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고급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본사는 신기술, 신공장의 개발 및 해외 공장으로 전수, 그리고 고급제품 위주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구미사업장과 수원사업장은 베트남 등 전 세계 삼성전자 공장의 'Mother Factory'와 기술혁신의 'Center of Excellence'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수원 제조기술센터와 구미사업장은 해외 사업장 진출 시 초기 안정화 단계의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본사는 베트남사업장에 현재 주재원 37명과 150여 명의 출장자들을 파견하여 베트남사업장 운영에 대한 중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의 신제품 라인 구축, 공정혁신, 자동화 등

7) Mother Factory: 신규 혁신 생산방식 및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의 다른 공장으로 전수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8) Center of Excellence: 기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산·학·연 각 연구주체의 전통적 역할구분이 아닌 각 연구주체의 핵심 역량에 따른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음.

각종 기술집약적 업무에 향상을 위한 셀방식과 블록 셀방식 생산시스템⁹⁾ 개발 및 전파, 그리고 공정 자동화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한, GSCM(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전산시스템 운영 등 글로벌 생산체제의 실시간 관리 및 최종 문제 해결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미사업장의 글로벌 제조센터와 제품기술팀, 수원외의 제조기술센터의 대규모 인력이 삼성형 생산시스템(Samsung Production System, SPS)의¹⁰⁾ 혁신적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데, 구미사업장의 글로벌제조센터에는 기술직 인력 35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제품기술팀에도 기술직·개발직 인력 2,7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전사 조직인 제조기술센터에서는 제조기술팀, 자동화기술팀, 요소기술팀, 금형기술팀, 제조혁신팀, 지원·인사 및 해외생산법인팀 등에서 총 1,169명의 인력이 업무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베트남사업장은 상용 상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베트남사업장의 휴대폰 1대당 인건비는 구미사업

장의 1/6 수준이다. 제조인력 풀의 경우 베트남은 22.3만 명으로 6.4만 명인 경북 구미에 비하여 약 3.5배 크다. 2012년 베트남사업장은 2.1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현재 구미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생산직 채용이 불가능하다(표 7 참고). 만약, 구미사업장의 채용대상을 주부, 경력직,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협력업체의 인력 풀을 침해하게 되어 채용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

특히, 베트남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에서 높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3회에 걸쳐 총 5년까지 기간제 활용이 가능하지만, 구미에서는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간 근무일 수를 비교하면, 베트남은 302일이고, 한국은 249일이며, 연간 법정근무시간은 베트남이 2,416시간이고 한국은 1,992시간이다.

또한 베트남은 매력적인 세제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사업장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 EPE)으로¹¹⁾ 선정되어 매년 1,600만

〈표 7〉 연도별 노동가능 고교 졸업생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구미	채용가능지역 졸업생 수	285,828	279,500	304,207	312,132
	대학 진학자	252,535	244,847	259,858	247,544
	활용가능인력	33,293	34,653	44,349	64,588
베트남	채용가능지역 졸업생 수	337,839	324,598	324,598	306,226
	대학 진학자	79,865	65,634	87,641	82,681
	활용가능인력	257,974	258,964	236,957	223,545

주: 채용 가능지역: 1) 구미-충청, 전라, 경상권, 2) 베트남-64개성 중 15개성(하노이, 박닌, 박장 등).
출처: 베트남 통계청, 과학기술부 자료.

9) 셀방식: 대량생산방식과 달리 컴퓨터, 휴대폰 및 기타 AV기기와 같이 모델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생산 공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숙련된 작업자가 특정 셀 안에서 조립 및 생산과 관련된 모든(때로는 일부) 공정을 책임지고 담당함. 블록셀 방식: 셀방식을 발전시킨 방식으로 완제품을 블록별로 생산하는 방식임. 각 블록에 속한 여러 셀에서 각자 맡은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함.
10) 삼성형 생산시스템(Samsung Production System, SPS): 제조 관련 주요지표, 우수 개선사례, 표준화, 기준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벤치마킹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개발함.
11)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PE):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 또는 공업구, 경제구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전부를 수출하는 기업. 수출가공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베트남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음.

〈표 8〉 관련세제 비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대(對) 베트남사업장

구 분	구미사업장	베트남사업장
법인세율	22%	4년간 면제(12년간 5%, 34년간 10% 적용)
수입관세율	품목별 0~50%	면제
부가가치세율	10%	면제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

〈표 9〉 입지환경 비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대(對) 베트남사업장

구 분	구미사업장	베트남사업장
공업단지임차료	매입	면제(토지경지비용 \$0.33/m ²)
산업용전기요금	\$0.09/kwh	\$0.06/kwh
수도요금	\$1.2/kwh	\$0.4/kwh
통신비(휴대전화)	\$0.1/min	\$0.05/min

출처: 삼성전자 내부자료.

달러 이상의 제세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베트남사업장은 법인세 50년간 최우대(4년 면제, 12년간 5%, 34년간 10%), 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의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적용 받고 있다(표 8 참고).

비록 베트남 현지의 도로와 전력 사정은 다소 열악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토지 임차, 국내에 비해 1/3~2/3수준의 전기 및 통신요금 등의 저렴한 입지 조건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표 9 참고).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각국에 있는 현지법인의 전문분야를 통합해서 글로벌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특화 시설에서는 반도체를, 베트남,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제조 및 조립을 그리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비롯한 세계 디자인 중심 도시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여 각국에서 최적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4.4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구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앗고, 납품가를 강제로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협력업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2013년 1월 22일~26일 동안 인탑스, 마이크로샤인 및 해성전자의 대표를 대상으로 면접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삼성전자는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와 끊임없이 공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공정 혁신의 예로서는 카메라 렌즈 먼지 제거, 사출 속도향상 등이 있다. 공정 혁신을 위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업으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져 삼성전자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수주 증가의 혜택은 물론 물량의 수요도 더욱 예측 가능해져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때로 삼성전자가 중소기

업의 기술을 내재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술 협력과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일정 부분 내재화한 후 발전시켜 중소기업으로 환수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력 탈취의 사례에 대해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인력 탈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인력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인력 탈취로 오인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협력업체들과 상호협력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진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납품가 압력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사업체 간에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협력업체의 안일한 태도와 기술 발전의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다방면에서 기술진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와의 협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기 보다는 오히려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 동반 진출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고용규모 변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협력업체의 고용 패턴은 삼성전자와 유사하여 한국 내에서 기술·개발·관리 인력과 같은 고급인력의 고용이 늘어났다(표 10 참고). 이어서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베트남사업장과 함께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 사례에 대해서 업체별로 살펴보았다.

4.4.1 인탑스

인탑스는 휴대전화커버를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사출부문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기업이다. 2012년 기준 매출 9,181억 원을 달성하였고, 총 고용 인원은 5,310명에 이른다. 인탑스는 삼성전자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1985년 이후 100배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1985년 삼성협력업체가 될 당시 직원은 약 50명이었으나, 2013년 1월 국내외 고용 인력은 총 5,000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법인설립과 함께 동반진출을 한 이후, 국내인력이 1.6배 증가하였다.

인탑스의 관계자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많이 습득하였고 이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인탑스 구미사업장의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

〈표 10〉 베트남 동반진출 주요 협력사 매출 및 인력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탑스	매출(억원)	3,570	4,392	6,533	9,181
	국내인원(명)	900	970	960	1,450
	해외인원(명)	1,170	1,220	3,270	3,860
마이크로샤인	매출(억원)	1,921	2,326	3,599	7,900
	국내인원(명)	291	339	357	427
	해외인원(명)	1,230	2,294	2,738	4,324
해성전자	매출(억원)	173	226	298	640
	국내인원(명)	114	110	129	133
	해외인원(명)	-	-	80	540

출처: 협력체 대표와 필자와의 인터뷰(기간: 2013년 1월 22일~26일).

되어 기술협조, 자금, 펀드, 낮은 이자율 등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인탑스 베트남 법인의 경우 삼성전자의 GVE(Group Value Engineering)과제를 통해 원가절감에 성공하여 절감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4.4.2 마이크로샤인

마이크로샤인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Linear Motor, LENS, LCD, 안테나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 7,9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총 고용 인원은 4,751명이다. 마이크로샤인은 가격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이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할 때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샤인은 원자재 구입의 약 70%를 한국에서 조달했는데 그 주요 조달품목은 이미지센서 및 렌즈 등으로 베트남에서 조달이 어려운 고급 부품이다.

2009년 이후 마이크로샤인의 매출과 국내인력, 해외인력은 모두 증가했다. 예를 들면, 전체 매출은 2009년 2,000억에서 2012년 8,000억으로 4배가량 증가했으며, 베트남 사업장의 인력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인력의 경우, 마이크로샤인과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국내 총 고용 인원이 2009년 290명에서 2012년 43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늘어난 고용인원은 대부분 R&D와 관련된 고급인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이크로샤인은 여러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샤인의 경우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베트남 생산법인보다 먼저 베트남 정부로부터 EPE 기업으로 분류되어, 2012년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 생산법인이 EPE 기업으로 인증 받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마이크로샤인은 노키아와도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노키아의 의사결정이 폐쇄적

이고 느려서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4.4.3 해성전자

해성전자는 카메라 모듈과 렌즈(연마, 금형, 사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2년 매출이 640억 원이고, 총 고용 인원은 673명이다. 해성전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부품과 소재를 베트남 현지에서는 조달할 수 없어 한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며, 렌즈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09년 이후 해성전자의 매출과 국내인력, 해외인력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전체 매출은 2011년 298억에서 2012년 64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인력은 80명에서 540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 본사에 테스트 라인(Test Line)을 두고 있어 본사 인력의 대부분이 개발직·기술직·관리직으로 고부가가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법인에는 기술 지도를 위해 주재원 11명을 유지하고 있다. 해성전자 역시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디지털 기술이 5~6년 전에 일본을 넘어섬에 따라, 삼성전자의 광학기술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졌고, 이와 더불어 해성전자의 기술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해성전자의 아날로그 기술(광학 기술)은 일본과 대등하다고 한다.

V. 시사점 및 제언

경제학과 경영학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자원분배는 이제 한 기업,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즉, 가장 잘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노동력에게 맡겨야 한다. 예를 들면 고기술이 많이 관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특화된 기업(부문)은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단순 기술이 많이 관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부문)인 경우에는 학력이나 숙련도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활동의 각 부분을 국제화하면 생산성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중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협력업체와 함께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은 경영전략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가치사슬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국제경영의 FDI 이론과 접목시켜 가치사슬의 활용범위를 글로벌 차원에서 특화된 지역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잘 활용하면 오늘 날 기업의 국내외 생산활동의 다양한 면을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산업정책에 필요한 시사점도 명쾌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뒷에 걸려 더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제화이다. 해외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새로 받아들인 경영기법, 기술 및 산업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산업의 효율성과 고도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인 국제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제화의 일부인 수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성향이다. 진정한 국제화를 통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과 같은 무역은 물론 IFDI 및 OFDI와 같은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근래 들어 IFDI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OFDI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일

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선전(善戰)에 의한 경제발전을 두고 '고용없는 발전'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의 고용 가능 인구 중 약 0.3%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2012년 부담한 법인세(추정치)는 약 6조 1,930억 원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 및 포스코를 합친 것과 비슷하며(아주경제 2012/12/12), 2011년 전체 법인세(37조 9619억 원)를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법인세의 약 16%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경제 2012/10/29).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같은 생산성을 갖춘다면 우리 경제 전체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삼성그룹 내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약 50%에 이르는 고용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삼성그룹 내의 다른 계열사들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성과를 낸다면 삼성그룹 전체의 생산성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들의 해외진출로 국내의 고용인원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1) 국내에서는 고용의 질이 향상되며,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고급일자리가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규모가 확장되었을 경우, 협력업체들의 규모도 증가했다. 따라서 (2) 이들 협력업체들의 고용 역시 증가했다. 즉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업체의 성장과 연계되어있고, 이는 국내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Business-ecosystem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부존자원과 저임금은 개발도상국과, 기술력은 선진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제화를 통하여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전략이 바로 한국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본 연구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시 국제화 전략이 원동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현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경북 구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근속이 6년이고 연간 이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생산법인 내에서의 이직률은 50%에 이르며, 이에 따라 평균근속의 정확한 산출마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여가, 교육, 의료시설 등의 생활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진출 시 더욱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 산업환경만을 우선시 하는 것보다는 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Industrial Eco-city 건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상된 생활환경은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력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효율적 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로 생산성과 행복 지수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ndustrial Eco-city 개발 자체가 제조와 건설 등 관련분야들을 잘 통합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타 국가의 기업들 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VI. 결론

국내경쟁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국제경쟁으로 바뀌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국내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해외의 대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의 대상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쟁구도가 국내에서 국제로 바뀔에 따라 경쟁의 대상 역시 '한국 대기업과 협력사들'로 이루어진 국내기업군과 '외국 대기업과 협력사들'로 이루어진 외국기업군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삼성전자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힘을 합쳐 애플과 애플의 협력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효율 경영을 하려면 국제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자국의 상품 수출만을 중요시하는 무역중심의 국제화보다는 FDI를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국제화가 필요하다. FDI는 기업의 가치사슬의 각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글로벌 차원에서 최적화 시키는 전략이다. 따라서 FDI에 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의 목표가 복지인가 성장인가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복지이다. 성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을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성장이란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Quality Jobs)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국제화를 통한 국내고용의 고도화는 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 현대, POSCO 등 다수의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럴 때 올바른 국내 경제정책은 이들 기업들에게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날개를 달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로 불리는 문화발전까지 이루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에 서있다. 국제화에 대한 올바른 선택으로 한국경제와 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ain.do>(검색일: 2013. 2. 25).

김미아(1998),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융학회지**, 3(1), 125-143.

김흥기(2010),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제조업 산업별 패널자료 활용," **한국경제연구**, 28(2), 145-170.

문휘창(2012), "포터 교수도 못 본 글로벌 트렌드: 다중 가치사슬," **동아비즈니스리뷰**, 105, 40-43.

문휘창(2013), "애플, 오바마 부탁에도 아이폰 中 생산 고수한 이유...", **동아비즈니스리뷰**, 127, 90-93.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491(검색일: 2013. 2. 24).

산업자원부·KOTRA 무역투자연구원(2007),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경제효과·정책적 제언**, 서울, (주)한국개발조사연구소.

삼성전자(2013), 2012 회계년도 언론 발표자료(1월).

서울대학교·지식경제부(2009), **외국인투자 매력도조사**, 서울, 지식경제부.

아주경제(2012), "경제민주화 논란에도 주요 기업 법인세 14% 더 낸다...삼성전자 6.2조 추산," (12월 12

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2000574#>(검색일: 2013. 2. 25).

애플(2012), 2012년 회기결산 Annual Report(9월).

장용준·현혜정(2012),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와 메커니즘분석," **한국경제연구**, 30(1), 99-119.

정운오·전규안(2013), "한국 다국적기업의 Outbound Tax Planning: 두산중공업의 미쓰이바콕(Mitsui Babcock) 인수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7(2), 229-244.

조선일보(2012), "삼성전자·현대차 고용현황 살펴보니 국내서 1명 뽑을 때 해외선 4명 채용," (9월 4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4/2012090400230.html(검색일: 2013. 2. 22).

한국경제(2012), "'법인세 솔림' 가속...상위 1% 기업이 86% 부담," (10월 29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1600011>(검색일: 2013. 2. 28).

Desai, M. C., C. F. Foley, and J. R. Hines, Jr. (200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Capital Stock,"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5, 33-38.

Dunning, J. H.(2003),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Upgrading China's Competitive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y*, 4(1), 1-13.

Financial Times(2012), "Korea's Youth Face Shrinking Jobs Pool," (April 26) <http://www.ft.com/cms/s/0/fe853d42-8f86-11e1-98b1-00144feab49a.html#axzz2LunxPNJB>(검색일: 2013. 2. 22).

Ha, B. K.(2003), "Deindustrial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Does Outward Direct Investment Mat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Restructuring or Hollowing-out in Asian Economies, 5 December 2003, Seoul. 125-157.

Herzer, D.(2008), "The Long-run Relationship be-

- tween Outward FDI and Domestic Output: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s Letters*, 100, 146-149.
- Kang, H., S. Chang and J. Song(2013), "Competition for Platform Leadership: The Smartphone War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Korea Business Review*, 17(1), 161-202.
- Masso, J., U. Varblane, and P. Vahter(2008), "The Effect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me-country Employment in a Low-cost Transition Economy," *Eastern European Economics*, 46(6), 25-59.
- Moon, H. C.(2007),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Enterpris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 UNCTAD, *Global Players from Emerging Markets Strengthen Enterprise Competitiveness through Outward Investment*,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93-106.
- Moon, H. C.(2010), *Global Business Strategy: Asian Perspective*. Singapore, World Scientific.
- Moon, H. C. and T. Bark(2001), "Asian Economic Crisi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tabilized Economic Growth: Crisis Revisited and Implications for APEC Member Econom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y*, 2(1), 39-55.
- Moon, H. C. and J. S. Jung(2010), "Northeast Asian Cluster through Business and Cultural Cooperation," *Journal of Korea Trade*, 14(2), 29-53.
- Moon, H. C. and D. Lee(2004), "The Competitiveness of Multinational Firms: A Case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and Son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1(1), 1-21.
- Moon, H. C. and T. W. Roehl(2001), "Unconven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mbalance Theor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 197-215.
- Moon, H. C., J. Parc, S. H. Yim, and W. Yin (2013), "Enhancing Performability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ustering: A Case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on (SEC)," *International Journal of Performability Engineering*, 9(1), 53-62.
- Moon, H. C., A. M., Rugman, and A. Verbeke (1998), "A Generalized Double Diamond Approach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7, 135-150.
- Porter, M. E.(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UNCTAD(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
- UNCTAD, www.unctad.org(검색일: 2013. 2. 27).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ww.worldbank.org(검색일: 2013. 2. 27).

The Economic Effec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ase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Co.*

Hwy-Chang Moon** · Jimmyn Parc***

Abstract

South Korean government currently places high priority on creating jobs as part of the efforts to reinvigorate the country's slowing economic growth. Several media outlets and policy makers argue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bring their overseas' manufacturing facilities back in Korea to create more jobs for the Korean people. However, overseas and domestic employments are complementary, rather than alternative. This is because the competi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scope in today's world. In this paper this is proven by a case study of the mobile division of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on (SEC). SEC is not competing against othe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Korea, but against the global system of Apple. Furthermore, SEC's growth is beneficial for its partners as well, by creating their jobs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 skills. This paper presents a better way to understand corporate international strategy and suggests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Key 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Samsung Electronics Co.

* Data used in this paper without any particular citation are from internal data base of SEC, and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helped us access to them.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Doct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École Doctorale 188, Centre Roland Mousnier-CNRS UMR 8596, Université de Paris Sorbonne (Paris IV), Corresponding author.

〈Teaching Note〉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1. Synopsis

최근, 한국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더불어 국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로 인한 국내고용시장의 감소가 국내경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자칫 잘못된 행정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약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 투자 사례를 통하여 기업의 OFDI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용의 경우, 인력을 고급과 미숙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는 미숙련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고급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FDI의 효과 중 하나인 산업의 고도화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고용과 해외고용은 제로섬 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가치사슬 내의 여러 산업 활동은 경영여건에 따라 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멀리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기업은 현지의 유리한 경영환경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이 복잡·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가치사슬 상의 여러 산업 활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휴대폰 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가 애플 협력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베트남 진출로 인해 인탑스, 마이크로샤인 및 해상전자와 같은 협력업체도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화를 통한 국내의 고용 고도화는 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순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한국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제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한국경제와 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Teaching Point

첫째, OFDI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올바른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다.

둘째, OFDI의 긍정적 효과를 국가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하다.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분석 능력을 기른다.

고용이 줄어든다고 보기도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산업 활동을 하는 주체인데, 대기업의 타국 이전 산업 활동 부문은 해당 국가에서 관련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산업 활동의 해외이전이 발생한다. 또한, 대기업의 전체 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남아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활동 부문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와 고용은 더욱 증가한다.

셋째, 일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3. Assignment Question and Analysis

첫째, OFDI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십시오.

아래 표 참고.

둘째,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제시하십시오.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타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 시켜야 한다. 경쟁력 향상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대기업은 산업 활동의 일부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

가치사슬의 각 부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 원활하여 시너지 효과를 잘 발휘할 때 대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산업 활동이 복잡·다양한 오늘 날에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을 대기업이 홀로 맡기보다는 일부를 전문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치사슬의 활동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 자신은 물론 각 부문과 연계되는 협력업체들의 고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경쟁의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즉,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의 주체는 ‘국내 대기업 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고, ‘국내 글로벌 대기업(예, 삼성전자) 대 국외 글로벌 대기업(예, 애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생산조건	기초	장기적 자본유입, 고용증진	일시적 자본유출, 고용감소
	고급	생산성향상, 해외기술 습득	
수요조건	크기	신시장개척, 수출증가	일시적 수출 감소
	질	글로벌 시장 확보	
관련산업	클러스터	관련산업의 발전	산업공동화 현상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	
경영여건	시장구조	산업구조의 선진화	해당산업의 국내기반 약화
	자원배분	글로벌 경쟁력 강화	